

# 도, 부처예산 반영 위해 막판 총력전

### 조봉업 행정부지사, 해수부·문체부·산업부 등 주요 부처 방문... 전북 공약사업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강력 요청

전북도가 부처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막판 총력을 다하며, 내년도 국가 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흔들림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각 부처예산안이 기회조정실 주관 막바지 조정 과정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더 많이 담기 위해 주요 부처 기조실장을 찾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4일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해수부, 문체부, 산업부 각 기조실장을 만나, 윤 대통령의 약속인 전북 공약사업과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예산반영을 건의하며, 부처단계 국가예산 활동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해수부를 찾아 △군산항 제2 준설로 투기장 건설,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경포항 국가어항 확장 개발 △구시포항 국가어항 준설로 투기장 건설 등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해수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 계획(2020~29)에 반영된 고창군 '명사리지구 연안정비 사업'의 필요성



을 설명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신규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문체부에는 공약사업인 △국립 전북스포츠포럼합동원 건립, △국립제대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계속사업인 △세계 서예비엔날레관 건립,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의령역 전당 건립 사업의 한도액 내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국립 전북스포츠포럼합동원 건립', '국립제대권도사관학교 설립' 두 개 사업 모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사업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에는 신산업 지도 완성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플러스터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군산 스마트그린산업 조성 위한 스마트

트산업 제조혁신 기반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도는 부처예산안이 기재부로 제출되는 5월 말까지 부처 대상으로 막바지 활동을 전개한 후, 6월부터는 기재부 대응 체제로 전환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호상기자

## 도-日 이시카와현, 화상 교류회의

### 양지역 교류 20주년 기념·향후 교류구체 협의

전북도는 교류지역인 일본 이시카와현과 과장급 정례 교류회의를 24일 개최하고, 양 지역간 국제교류 정상화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한일 양국 간 출입국 상황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 과장급 교류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 행정·청소년·대학·환경·공무원 파견 등 하반기 주요 교류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오는 7월 예정인 청소년 교류는 온라인으로 추진해 각각 15명 정도의 청소년을 선발 이웃 국가 또래 친구에게 궁금한 질문을 사전에 교환한 후 온라인상에서 토론하고, 양 지역 대표문화강좌도 진행하기로 했다. /유호상기자

또한, 격년제로 추진 해 왔던 이시카와 현립간호대 전북연수도 올해까지는 온라인으로 추진 8월 중 1주일 동안 한국어, 전북문화, 전라북도 간호대 강좌, 보건관련기관 강좌 및 학생 교류 등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년 한중일 3국 환경협력회의와 교류회의 전북도개최 및 양 지역 공무원 파견 재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측은 한 해 연기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하반기 교류는 온라인으로 추진해 개최를 검토하기로 하고, 지역 안테나를 활용한 홍보 등 3년 가까이 움츠려 있었던 인적·물적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호상기자

## 적극적 규제혁신으로 농촌지역 주민 편의 증진 기대

### 전북도, 올해 1분기 규제예로 3건 개선·해소 사례 3건 선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투입·친환경 농산물 단체인증 취소기준 완화

전북도가 지난 23일 도민의 일상 속 편의 증진을 위해 법령 및 중앙부처 지침에 의한 규제예로 3건을 개선(예정)했으며, 규제예로 해소 우수사례로 3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2022년 상반기에 8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3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13건의 규제예로 해소 사례 중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도민이 생활 속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하는데 적극 힘썼다.

도에서 규제예로 개선한 과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투입, △친환경 농산물 단체인증취소 기준 완화, △호밀밭 등급결정 완화 등 3건이다.

주요내용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앞당겨 개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시기를 기존 4월말에서 3월경으로 조정함에 따라, 분철 농어촌지역의 일손부족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 단체인증시 소수농가의 인증기준 위반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신뢰도를 유지와 함께 농가 소득 향상에 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예로 해소 사례로 △전주시 공공매달입/전주맛배달/ 구축·운영(전주시), △공공기관의 부당한 관행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군산시), △생방향 소통이 가능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민원발급기) 개발·구축(진안군) 등 3건이 선정됐다.

특히, 진안군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발급기 개발로 공무원과 민원인의 화상상담, 원격 서류 발급 및 민원신청, 각종 정책 주민여론 수렴 등을 가능케 해 농촌지역 주민의 행정기관 방문 불편 및 정보통신기술(IT) 취약계층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예로로 해소,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동희 도 법무행정과장은 "지역 현장 곳곳의 규제예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으로 도민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 공모 선정

### 도의 풍부한 문화유산 디지털화·데이터 구축·개방... 국비 3억 원 확보·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구축·가공 및 품질관

리가 필요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공데이터 분야의 실무 경험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사업이다.

청년 인턴 참가 희망자는 오는 6월 14일까지 모집하며, 4대 보험 가입과 경력경쟁서 발급이 가능하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청년인턴 관리 사이트 주소(<https://opendata2022.co.kr/>)에 접속해 지원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 인턴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사업 완료시까지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도의 유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에 관한 신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문화유산 데이터의 품질을 정비해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 과정에서 최대 13명의 청년 인턴을 고용해 참여 인턴들에게 다양한 실무 교육을 진행 등 지역 청년들의 역량 향상에 힘쓸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점검

### 전북도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 도민건강 및 안전을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으로 활용하는 인공시설물 중,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는 시설로 도내 78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그간 관련 시설물들이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운영을 중지했던 만큼, 운영 신고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물놀이 수위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5월 말부터 7월 까지 수질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중 관리기준은 수심 30cm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에 대한 수시점검·제거, 주 1회 이상 저류조 청소나 물 교체, 소독 여부 등이다.

또한,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진류염소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 적절한 수질을 유지



해야 한다. 금번 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기준 점검과 함께, 시료를 채취해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없이 개방을 중지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출입구 등에 안내판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안전사항이나 주의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안녕합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16회 전국 장애인가요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 재능개발로 삶의 의욕을 돋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최하오니 많은 사랑과 홍보를 기원합니다.



대회본부장 김일욱



대회홍보위원장 이수정(가수)



대회제진위원장 손명영

1. 일시 : 2022년 6월 12일(일) 오후 2시 30분
2. 장소 : 전주 풍남문화광장
3. 주최 :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4. 주관 :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전주시 장애인복지협회
5. 후원 : 전라북도, 전주시, 서광수출포장(주), (유)유복이엔지, 삼대농장계성건설(주), 수정과한울타리협회,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 참가자격 : ① 전국의 16세 이상 등록장애인  
② 타 대회 대상, 최우수상 하지 않은 자

전화 : 063-286-6676 · 287-6678, FAX : 287-6676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